

# 다원주의 시대의 대안으로서의 교정복지

박혜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교정복지연구소 연구원

## 논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 사상이 우리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끼친 다양한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다원주의의 부정적 영향에는 기존 사회의 보편 기준과 질서의 붕괴로 인한 아노미, 극단적 이기주의, 도덕과 법률 등에 대한 경시로 나타나는 비도덕성 등의 여러 가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가치관의 혼수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 가치 자체를 상실한 점이다. 특히 기준과 기초 토대가 부실한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인간 존엄성 상실의 문제는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존엄성을 상실한 결과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사회 영역뿐 아니라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상실한 개인의 불안하고 혼돈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교정복지에서는 이런 다원주의 시대의 대안으로서 개인의 존엄성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기 고유의 삶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한다. 이를 머릿속의 객관적 지식이 아닌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 지식으로서 구축할 수 있도록 삶의 언어로의 해석을 제공한다. 자신에 맞게 결정한 고유의 기준과 체계에 따라 일관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타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수정 보완하며 함께 공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안은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관점과 삶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의 가치와도 일치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다원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을 전환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교정복지,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례연구(case study), 삶 중심의 체계, 고유성

## 들어가며

이 논문은 다원주의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자 사회과학 학문을 연구하는 교정복지 연구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고민에서 시작된 논의이다.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회복시키고 나아가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기여하는 방편으로서의 학문을 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다.

내가 기독교대학원생으로서 가졌던 가장 큰 혼란은 「내가 학문을 하는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인가?」의 문제였다. 대학원에서의 학업을 시작할 때는 학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나의 포부는 실제 학문영역이나 학자들의 공동체에서는 소통조차 될 수 없는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에 불과했다. 결코 실재가 될 수 없는 슬로건에 불과했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굳은 결정과 동기만 있으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나의 이상에 대해서 스스로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학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던 것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내가 말한 하나님의 뜻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내 전공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하기를 바랐던 것일까?」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에서도 연구자로서의 지식이나 실력에 있어서도 미숙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학문을 하려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했다.

기독교인으로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학문을 탐구하겠다는 것이다. 학문을 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만 거짓 없이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감당하겠다는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기독교의 사상과 관련이 깊은 주제들을 연구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발전과 업적을 통해 결과적으로만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학문을 하는 근본 목적과 동기, 과정, 그에 따른 기여의 전 과정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기독교학문인에게는 정체성이 먼저이고 학문이라는 수단은 그 정체성을 갖춘 사람이 고민하며 소화해야 할 이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과학 영역을 비롯한 많은 학문 영역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배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연구자가 연구에서 자신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를 위한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진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어떤 종교를 가졌건 어떤 가치관과 신념의 소유자이건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문 공동체 내에서 수용되는 객관적인 절차와 논의를 진행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나는 기존 학문 영역에서 통용되는 이런 방식에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내 정체성을 드러내려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연구에 있어서는 신앙이나 개인적 가치관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인 주제를 연구하되 신앙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유지하는 이원화된 모습, 혹은 몸담고 있는 학문 영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관련 주제를 최대한 첨가하려고 시도하는 중도적인 모습이였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주체가 ‘학문’과 ‘연구’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모호한 방식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 기여는커녕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신학이 아닌 일반 학문 영역에서 이 두 가지 대안 중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나에게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학문을 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학문을 하는 근본 동기와 이유부터 새롭게 구축하고,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그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구축해가는 내 자신의 대안이다. 이런 창의적인 고민과 도모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기독교를 사적 영역에서의 종교 활동으로만 유지하는 유사(quasi) 기독교연구자 이상은 될 수가 없다. 단지 학문이나 연구를 통해 선한 결과를 냄으로써, 혹은 정직한 과정을 추구함으로써 기독교연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내가 새로운 방식을 도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간은 학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재인식이였다. 오늘날의 학문은 삶에서 괴리된 채 현실의 삶에는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도 학문적 성취나 학력 등의 외면적 척도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계와 문제 때문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배우는 지식 역시 세상에서 통용되는 ‘학위’라는 지표만큼은 현실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다. 통합적으로 세상과 역사와 사람의 현실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학문과 지식이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학교’ 혹은 ‘논문’이라는 영역에서만 사용됨으로써 근본 목적과 역할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다. 나는 배운 지식을 나 자신을 위해서조차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나 자신이나 삶에 대해 무지한 자였기 때문이다.

학문을 통해 지식을 얻고, 그 지식으로 연구업적을 내고, 그 지식으로 타인을 가르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적어도 차별된 목적과 동기로 학문을 하겠다는 기독교 인연구자에게 있어서는 허구에 불과하다. 학문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삶에서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문은 결코 우리 자신의 존재나 삶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학문은 삶의 하나의 방식이어야 한다. 객관성 추구라는 이름으로 학문에서 우리 자신과 삶의 현실을 제거할 수는 없다. 자기 자신과 타인, 자신과 타인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공리 공론으로서의 학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연구자가 자기 자신이나 삶과 관련되어 학문과 연구를 도모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무엇이 기독교인학자다운 역할과 과업인지에 대한 끊임없이 자기 탐구와 연구, 반성과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이 과정을 교정복지라는 학문 영역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교정복지의 철저히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분석 정리하는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교정복지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근본 바탕으로 현실 속의 사람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 학문이다.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자기 존재와 삶과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소화하지 않으면 일반의 언어로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해서 이상적 인간과 사회 실현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나의 삶을 새로운 학문의 출발점으로 재정립했다. 내가 나를 이해하거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지 못할 죽은 지식은 제쳐두고 나 자신과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분명 복음의 정신에서 출발한 도모이지만 전체성이나 대표성보다는 각자의 고유성이 존중되고, 당위성과 이성, 이론보다는 실제 맥락과 삶이 주목 받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학문 영역의 변화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나는 다원주의라는 시대의 흐름을 비판하고 배척하다가 현실의 논의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배제되기 보다는 다원주의를 복음의 가치관과 사상으로 재해석하여 바른 대안을 제시하며 승화하는 역할이 이 시점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 I. 서론

오늘날의 사람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경제적 부요 속에 첨단기술의 혜택으로 놀라운 속도의 발전과 변화의 결과로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신문이나 TV 뉴스라는 일방향적 매체가 아닌 쌍방향의 다중 매체들을 통해 매일 새로운 정보와 트렌드를 접하고 자신의 관점대로 편집하고 그것을 타인과 공유한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기술의 영역에서는 어제까지 불가능했던 것들을 오늘 가능하게 만들고, 어제까지 불편했던 것들을 오늘 편리하게 보완하는 놀라운 발전을 신속하게 거듭하며 삶의 변화를 가속화한다. 인터넷이라는 열린 정보망이 공유되는 한 지구 전역을 구경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저렴하게 물건을 쇼핑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가능 영역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희소한 자원의 더 많은 확보와 소유

만이 아니라 많은 자원 가운데의 바람직한 ‘선택’의 문제이다. 이러한 선택 다양성의 사회에서 다원주의는 굳이 하나의 사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사회 각 영역에서부터 개인의 일상 삶의 전면에까지 침투해 있는 하나의 삶이 방식이자 법칙이다. ‘반드시 이것’,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 모두(both/and)’가 가능해진<sup>1)</sup> 세상이 다원주의 사회이다. 그것이 사상이나 가치관이 되었던 법칙이나 관습이 되었던, 심지어 의식주의 방식이 되었던 유일한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다수의 선택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

이런 다원주의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존의 보편적이고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기준 내에서 ‘옳음’을 택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기호와 취향, 감성에 따라 좋고 싫음을 택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이득을 주었느냐를 따질 뿐이다. 이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를 논의하기에 다원주의는 이미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방식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다원주의의 정당성과 타당성, 한계 등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을 제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서 시의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우리는 실제 삶에 파고든 다원주의적 삶의 방식의 특성과 그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삶의 전 영역에 만연해있는 다원주의적인 특성을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통해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인간과 삶의 진정한 복지를 고민하는 교정복지적 대응 방식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다원주의와 그 출처가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라는 특정 맥락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가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현대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나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긍정적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다원주의의 영향에 대한 균형 있는 파악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다원주의 시대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서의 교정복지의 역할과 개입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II.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다원주의

### 1.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Pluralism)란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나 사상, 세계관, 방식 등을 추구하는 대신 서로 다른 의견들과 입장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다원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무엇인지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사상적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서구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일한 하나가 아닌 모든 것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인정하도록 만들었을까? 서구의 중세는 신(神)중심의 시대였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된 이후 기독교의 영향력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기독교는 현실적인 정치 이념이나 통치 방식, 삶의 규범과 같이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직접적인 기준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종교를 인간 위주의 정치 이념, 통치 체제, 사

1) 김병서(1995). 새로운 사회운동과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29, 477-499.

회 질서, 도덕적 관념 체계 등으로 이용함에 따라 신과 진리는 인간에 의해 도그마화되었고 이는 당시의 사회 전 영역과 인간의 창의적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경화시켰다. 당시의 인간은 하나의 개인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집단의 부분으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세속화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자발적 사고와 창의적 발전이 정체된 가운데 두 개의 큰 개혁적 시도가 일어난다. 하나는 르네상스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개혁이다. 이 둘은 정신적 자유를 지향했다는 동기와 중세의 속박과 미신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목적에서는 공통성을 갖고 있었다. 다만 르네상스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종교개혁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지향했다. 그리고 더 큰 차이는 근본 가치관에서 드러난다. 르네상스는 현세의 행복을 추구했으며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중시한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추구했으며, 인간의 본성을 악하고 타락한 것으로 여겨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불신했다.

신앙의 내면화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문화의 세속화를 지향한 르네상스보다 실제 근대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의 세속적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중세교회의 보편적 이념과 권위의 파괴되자 자연스럽게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관용이 생겨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었다. 또한 오직 성서에 근거한 개인과 신(神)의 직접적인 믿음의 관계를 주장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으로 근대의 평등사상과 개인주의적 자유사상이 초래되었으며, 이 반계층적, 반권위적 자유와 평등사상은 근대시민혁명의 근본이념이 되었다. 또한 종교 교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이성적 탐구가 사상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에 있어서도 종교개혁은 기존의 윤리적인 제약으로부터 경제를 해방시키고 이윤추구를 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소명으로 해석함으로써 경제적 개인주의 및 근대 자본주의 출현에 기여했다.<sup>2)</sup>

그러나 종교개혁의 원래의 동기와 정신은 빠른 세속적 발전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사라졌다. 모더니즘(근대주의)의 시작은 18세기 인간 이성을 강조한 계몽주의에 기반한다. 근대성이란 철저히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된 실증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며 기술 중심적인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 인식론의 주체는 이제 더 이상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을 통해 의심하고 확인하고 검증함으로써 옳고 그름의 결정권자이자 절대자로서 등극하게 된다. 인간은 이성에 따라 입증할 수 없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배제했다. 종교나 미신 등도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근대주의는 자연스럽게 성속(成俗)의 분리를 초래했고,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몰아냈으며, 대신 학문과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전통이나 기존 질서로부터의 과격적인 변화였다. 이런 발전의 결과로서 산업화와 경제 발전도 촉진되었다. 인간은 이성과 과학으로 인한 문명의 발전을 경험하며 이상적인 세계 건설에 대한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흐름은 비난을 면할 수가 없는 현실에 직면한다. 이성과 과학, 산업발전을 통한 인간의 자유와 인간성 해방을 주창하던 모더니즘이 어느새 그와 반대로 인간이 수단화되고 도구화되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산업화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되는 현실이 나타났다. 전통에 대한 개혁이었던 근대주의는 통제의 도구로 또 다시 기준이나 권위를 사용한 까닭에 모든 것은 흑과 백,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이성과 감성 등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류되었고, 우열의 가치가 매겨졌으며 이와 다르거나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억압과 통제가

2) 김영한 (1999).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사상』 43. 68-89.

이루어졌다. 또한 과학의 발전을 통해 얻은 힘과 부는 제국주의를 낳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이성과 과학에의 맹신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주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모더니즘의 처절한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움직임이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과의 확실한 단절(탈근대주의)이 아닌 연속선상에서의 개념(후기근대주의)으로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간 밖에서 오는 권위나 명령으로부터의 탈피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다만 모더니즘이 객관적 진리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두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그러한 객관적 진리라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각 학문 분야에서 각기 다른 뜻으로 해석되기에 하나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근대의 중심이 되었던 주체로부터의 탈중심화와 흑백의 구분과 같은 이원적 대립의 해체, 이성에 대한 과도한 맹신을 반발하는 반합리주의 등을 그 특성으로 들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신(神)이나 객관적 진리가 아닌 오직 개인의 취향과 선택, 의미부여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진리로 간주된다. 그 까닭에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 다양성 등이 강조되게 된다.

다원주의는 바로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오늘날 다원주의는 하나의 사상의 방식으로서 지역이나 문화권을 무론하고 오늘날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치관, 종교는 물론 개인의 삶의 일상 영역에까지도 흡수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원주의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과 적용 과정이 이런 기승전결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당시의 배경과 우리 사회의 특정 맥락 속에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다.

## 2. 우리 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나 학문 영역 등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제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으나 그 의미나 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편적으로 이해되거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이해되는 측면이 강하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받아들인 한국의 맥락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이다. 그러나 학계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는 그보다 뒤인 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당시 학자들은 주로 자신의 학문 영역에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를 들여와 소개하는 데 그쳤다. 포스트모더니즘을 한국적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출현한 서구의 역사적, 사회적, 사상적, 문화적 맥락과 우리 사회의 그것들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정일(1992)<sup>3)</sup>은 90년대 당시 국내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가 본격적인 연구나 토론, 비판의 수준에 돌입하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했다. 가장 큰 한계는 우리 사회가 포스트모더니즘의 ‘탈근대’를 논의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의 근대 자체를 성취하고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 각 영역에서 아직 채 근대가 자리 잡고 경험되지 못했기에 ‘근대 비판’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 논의가 세워질 기반 자체가 미성숙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내 학계에서는 당시 서구 포스트모더니즘의 선행 논의

---

3) 도정일(1992).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길잡이/ 제2부-90년대 한국사회 주요 논쟁: 포스트모더니즘 논쟁”, 「월간 사회평론」, 92(1), 222-227.

에 해당하는 구조주의, 후기구조의, 탈구조주의, 해체론, 정신분석담론 등 주요 이론과 분석 방법들을 도입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없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런 선행 논의들에 대한 이해나 비판이 생략된 상태에서 도입된 포스트모더니즘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국내 도입이 주로 영문학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까닭에 미국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등의 소개가 주를 이루었을 뿐 철학이나 사회이론 쪽은 도입 단계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국내 학계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당시 한국 학계의 한계뿐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의 도입 앞에 갖고 있던 한국 사회의 한계도 있었다. 김종숙(1999)<sup>4)</sup>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외래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의미를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발전하게 된 서구의 역사적, 사상적 맥락 등의 외부 변수와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의 사상이나 문화, 외래문화에 대한 수용성 등의 내부 변수간의 관계를 통해 탐구하였다. 90년대에 들어 포스트모더니즘은 비단 학계뿐 아니라 대중들의 의식이나 일상적인 행위, 상품의 이미지, 대중매체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확산되었다. 하나의 외래문화에 대한 그와 같은 적극적인 수용에 대해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전제와 한국사회의 상황이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표방하는 바가 한국사회의 현실과 문제들을 설명해주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사회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상의 변질에 있다. 도정일(1992)이 국내 학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깊은 통찰과 비판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까닭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서구의 역사적 맥락이나 배경 사상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한 탈맥락적인 한국 학계의 상황으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한국 사회 역시 근대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질 만한 기본 토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판논의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받아들인 것이다.

물질주의, 자아의 상실, 범죄, 비이성적인 행위나 전통에 대한 무시, 허무주의, 이기주의 등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비윤리적인 상황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들어오기 이전인 60년대의 산업화로부터 시작되어 7,80년대 이미 그 논의가 최고조에 달해있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입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게 된 것이다. 물론 도입 당시 일각에서 여성운동이나 환경운동, 인권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을 통해 사상 자체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는 도모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맹신에 대한 비판’을 마치 ‘이성 자체에 대한 비판’처럼 잘못 이해하여 받아들인 측면이 컸다.

서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할 때에는 당시 서구사회가 지니고 있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이 한국사회에 수용될 때에는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적인 측면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왜곡되어 수용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5)</sup>

한국사회는 서구의 역사와 비교해볼 때 어떤 사상이 주체적으로 싹트고 자리 잡아 이에 대한 자체적

4) 김종숙(1999). “포스트모더니즘 수용과 한국 사회윤리”, 「윤리연구」, 34. 23-45.

5) 김종숙(1999).

인 비판 의견이 나올 만한 충분한 시대적, 상황적 여건 가운데 놓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서구 유럽이 이미 한창 근대화로 인한 발전과 부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서의 철저한 수탈과 퇴보의 암흑기를 보냈다. 45년 식민지 해방 이후에도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근 반 세기에 걸쳐 국가와 국민 삶의 모든 근간이 파괴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당시는 이러한 경제적, 환경적, 정신적 황폐화로부터의 회복과 생존이 급선무였다. 전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재건과 생존을 위한 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산업화를 시작으로 도시화, 정보화 등이 반세기 남짓의 최단기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단기간의 발전이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런 급속한 발전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고 깊이 남기게 되었다. 생존과 발전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나의 국가로서의 방향과 가치관 체계의 정립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개인의 자기 정체성과 삶에 대한 가치관 정립의 문화도 갖춰지지 못한 채 성장과 발전, 부요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런 국가적, 개인적 가치관의 공백 가운데 단기간 동안 다양한 사상이나 문화, 문물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균형 있고 건강하게 정착하여 현지화 되기란 무척 어려운 과제였다. 우리에게서 어떠한 사상이나 제도 등의 이면에 그것이 등장하게 된 필연적인 배경이나 근거를 이해하고 경험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각각의 것을 자기 고유의 것으로 만들 기준이자 도구인 사회적, 개인적 가치관과 정체성, 가치 기준도 턱없이 부족했다. 어떤 한 가지 사상이 들어와 그에 적용하기도 전에 또 다른 새로운 사상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왔기에 각기 다른 역사와 사상과 문화의 배경을 가진 개체들이 동시대에 한꺼번에 뒤섞여 공존하게 되었다. 이는 비단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상, 교육, 문화, 영성 등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원주의의 영향 속에서 어떤 문화권보다도 급속하게 무너져가는 가치관과 기준, 질서 등을 목격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새로운 사상이나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할 뿐 우리 스스로 고유의 체제와 기준을 수립하려 하지는 않는다. 국가적인 사안에 대한 대국민적인 소통과 고민, 합의 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 영역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기업, 사회조직, 학문 영역과 학교 현장, 가정 등에서도 이와 같은 소통과 기준 마련의 과정은 생략되는 경우가 훨씬 빈번하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으며, 선택의 전반적인 스펙트럼이나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권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맹목적으로 주어지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흐름이다. 과거 거대한 산업화, 도시화의 빠른 흐름에 휩쓸리듯 오늘날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리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다원주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완전히 무시되고 일부 집단의 이해나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수가 선동되는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특수한 맥락에서 도입되어 급속도로 퍼져나간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는 사회 곳곳에 명(明)보다는 암(暗)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3.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다원주의의 부정적 측면

그렇다면 다원주의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점은 무엇이며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기여의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의 개념이 확장된 부분일 것이



다. 우선 인권(human rights) 개념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하나의 기준에 따른 가치를 구별하는 대신 각각의 개인들이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다원주의 가치관에 따라 점차 확장되었다. 기존의 주류 중심의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다양한 계층이 재조명되었고, 이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 자체가 변화된 측면이 있다. 소자(小子)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확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재조명하게 된 근거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기준의 회복과 확립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가치중립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까닭으로 볼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이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사회 공동의 합의와 뿌리 없이 다원주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가치와 절대 훼손 불가능한 존엄성을 가졌다」는 사상은 인간들의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조화 속에서 구현된다. 그것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각자의 인간다움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개인들의 욕구의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는 공동체 속에서의 각각의 욕구들이 어떻게 조화하고 양보해야 할지에 대해서까지 설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기존에 소외되었던 인권에 대한 재조명과 강조는 때로 그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려다가 오히려 타인과 공동체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의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서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의 경향성이다. 이것은 개인의 개성과 선택을 최대한 인정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다원주의가 가진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다. 「모든 것이 그것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갖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나 옳고 그름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다원주의 사상은 그간 사회를 유지해 온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의 영향력을 무너뜨린다. 결국 각자가 기준이 되어 개인의 욕구충족이나 주장을 정당화하고 극대화하는 극도의 자기중심성 사회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어떤 사회적 기준이나 공동체적 합의에서 벗어나 추구하더라도 그것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나 힘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누구도 개인에게 무엇이 절대적인 가치이자 기준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그것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일일지라도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극단화의 결과로 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의 합의된 기준이나 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로 결정한 사회 유지 보존을 위한 기준과 법과 체계를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이득을 위해 무시하고 예외를 통해 변경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소위 ‘폐법’<sup>6)</sup>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도덕이나 규범 등은 말할 것도 없으며 심지어 법이나 제도, 정책과 같은 사회 질서 유지책들도 오늘날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적인 통제 기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과 의견의 표출’의 영역 속에는 어느 새 반규범적, 비도덕적, 비반상식적, 비인간적인 선택과 표현마저도 포함되는 것이다.

---

6)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 이 신조어는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무시의 세태를 보여준다. (출처: 다음 매일경제 백과사전 참고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X4497>)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보편 기준을 부정하고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채택한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 자체를 상실한 현실이다.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 폭을 가장 확장시킨 것으로 보이는 다원주의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수단이나 방법으로 왜곡시켜 인간의 존엄성조차 선택 가능한 많은 기준 중의 하나로 여기게 되는 데 부정적으로 기여했다. 자기 자신을 절대화한 개인들의 이익 갈등 가운데서 인간의 가치는 오히려 상대적인 값으로 매겨진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인간을 산업화와 발전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측면에서 모더니즘을 비판했던 것에서 그 역기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에 대한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절대 신뢰할 시기만 해도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수단화, 도구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을 깨고 인간은 자신들의 이성을 도구로 그런 착취와 압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와 체제를 만들었다.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는 이성에 대해 유일한 신뢰와 맹신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전 시대와 차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여전히 인간의 결정과 판단에 맡겨두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되는 출처를 이성뿐 아니라 인간의 감성이나 기호 등의 다양한 출처로 분배해주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최대 욕구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운데 인간의 가치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단과, 도구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상황, 배경, 문제 등의 외부조건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절대적인 가치 기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출처는 기독교의 복음이며, 이것을 오늘날의 사회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복지와 교정복지라는 학문영역이다.

#### 4. 사회복지 영역에 미친 다원주의의 긍정적 영향

다원주의가 미친 영향력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다른 어느 영역보다도 직접적인 변화와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사회복지가 인간과 삶의 질, 그리고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학문이자 실천 체계이기 때문이다. 각 시대와 문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개념과 목표, 클라이언트 선정 기준이나 개입 문제의 범위,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가의 태도와 관점의 변화의 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다원주의는 오늘날 사회복지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변화의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자체로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

각 종교영역, 국가마다 사회복지적인 활동이나 관습은 일찍부터 존재했으나 우리가 오늘날 사회복지로 이야기하는 흐름의 시초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근간이 된 기독교 사상은 각 시대와 문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으며 때로는 변형되거나 왜곡되었다. 마침내 공적 사회복지의 등장과 함께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찾아볼 수 없게 됨으로써 오늘날의 사회복지의 완전히 하나의 공적 체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부인된 기독교 사상과 정신은 사회복지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루어진 변화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잣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초창기의 사회복지의 자선의 성격이 주를 이루었는데, 기독교적 개념에서 자선은 장려되는 미덕이었으며, 가난 역시도 세속이 아닌 내세의 천국을 소망하며 고통을 감수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sup>7)</sup>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이런 빈곤과 자선에 대한 사람과 지배 세력의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빈곤이 사회적 발전과 부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빈곤은 더 이상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개인의 부도덕함과 게으름, 나태함 등의 악(惡)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빈곤에 대한 자선 역시도 사람들을 구제에 의존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방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sup>8)</sup>

제도적 사회복지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개입으로 간주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의 문제를 국가의 경제 문제로 인식했다. 노동력을 가진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산물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과 국가에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나 고아, 노인, 장애인이나 병자 등은 공동체가 돌보아야 할 약자이기보다는 문제를 가졌기에 격리해서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다. 비록 사회복지의 시발점은 기독교 정신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박애정신이었지만 이것이 현실의 역사 가운데 실제 구현될 때에는 시대적인 영향력 아래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구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통제적인 방식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오히려 빈곤층과 구제 비용이 나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점차 빈곤이 개인의 부도덕함이나 게으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서 사회적인 책임의 소산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인식의 변화에 비록 오랜 과정과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사회보장법 제정 등 질병이나 죽음, 사고, 실업, 장애 등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을 나누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가 빈곤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복지국가로서의 다양한 시도를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이런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의 큰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사회복지가 문제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클라이언트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이것은 오늘날 복지비용의 증가 등을 두고 복지의 역할 배분이나 비중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인간을 보는 가치관과 인간의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차이가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며,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가 미친 긍정적인 영향도 확인될 수 있다.

모더니즘 시대의 사회복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론과 큰 담론을 통한 인간과 문제에 대한 접근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가주의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이분법적인 태도와 문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등이다. 모더니즘에서는 이론이나 담론이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가진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던 까닭에 정신분석, 진보주의, 마르크스주의, 생물사회학적 결정론, 구조주의 등의 담론의 창을 이용하여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려 했다.<sup>9)</sup> 사회와 인간

7) 박광준 (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 선택까지」. 서울: 양서원

8) Gaston V. Rimlinger (1971).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1991).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9) Bauman, Z. (1992). 「Intimations of Postmodernity」, London: Routledge. : Sarup, M. (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Hemel Hempstead: Prentice Hall/Harvester Wheatsheaf.

과 인간의 문제 자체를 그가 속한 고유의 맥락과 특성 속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이론의 틀에 맞춰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런 거대한 이론이나 담론과 같은 틀(framework)에 대한 의존은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집단의 권위로 이어지게 된다. 지식이 권력(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모더니즘 영향 하의 사회복지 실천이 보이는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런 지식 권력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보다 클라이언트 자신의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 간주된다.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지위나 클라이언트가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들의 지위(status),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통한 경험적 지식과 기준 등의 가치와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다.<sup>10)</sup>

사회복지실천에 끼친 또 다른 모더니즘의 영향 중 하나는 자아(自我)나 문제 등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규명되고 유형화될 수 있는 고정적이고 단일적인 개념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모더니즘이 다양성보다는 통일성, 모순이나 갈등보다는 질서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실천은 이러한 관점의 기반으로 한 경험론적 이론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 이론들은 다양한 인간의 행위나 관계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실천의 거대한 틀로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이런 관점이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에 적용될 때에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개인들이 가진 고유성이나 특성을 간과되고, 상황이나 환경 등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획일적인 진단과 개입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현실적 필요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개입과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이 설명할 수 없거나 이론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현실에 대해서나 관찰자의 왜곡과 객관성의 문제 등으로 촉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과 논쟁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한계 있는 관점과 시각에 획기적인 전환을 불러오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들이 사회복지의 클라이언트와 그가 가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과학에 기반한 이론이나 지배 담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식의 다원적인 관점을 고려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기존에 전문가가 전문 지식에 근거해 클라이언트를 해석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진단, 명명하던 권위가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sup>11)</sup> 클라이언트와 그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클라이언트나 그의 문제를 고정적이고 본래적인 속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문제나 개인을 상황이나 고유성의 맥락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실체로 보던 기존의 태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따라 환경이나 상황이라는 맥락 속에 존재하는 인간(Person in environment: PIE)으로의 시각으로 변화되었다. 클라이언트는 ‘그가 속한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상호관계에 있으며, 각각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가지며, 유동적이고 변화가 가능한 복합적인 대상’으로 새롭게 조명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정상/비정상 등으로 나누는 단순화된 이원론적 진단 대신에 각각의 개개인의 가진 고유성과 특

10) Grey, M. & Webb, S. A. (2009). *Social Work Theories and Methods*. London: Sage Publications. 김기덕·최명민·이현정·조성우 역(2012). 「철학적 토대와 대안적 연구방법: 사회복지학의 새로운 접근」. 서울: 시그마프레스.

11) 고미영(2000). “구성주의와 정신보건 사회사업 실천의 접목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0. 5-23.

성, 각각의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하여 접근하는 일대일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효과성이 입증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는 개개인의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과거처럼 이론이나 담론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삶의 전 영역과 내면, 그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한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정보의 출처 중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가장 폭넓은 정보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인 클라이언트 당사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클라이언트를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나 문제를 가진 비정상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가 자신에 대해 갖는 경험적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경험적인 ‘앎’과 경험적인 ‘지식’의 가치에 대한 관점의 큰 변화의 밑바탕이 된다. 또한 이런 전환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나 장애, 결핍보다는 그가 가진 강점에 초점을 두는 시각으로의 변화, 개입방식이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수용성의 확장 등의 변화와 성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초래된 근본적인 관점과 태도의 변화가 지속적인 사회복지와 교정복지의 발전과 성숙에 있어서 큰 가능성을 열어 준 의미 있는 기회이다. 개인과 그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개인의 경험과 내러티브를 강조하게 된 사회복지의 전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깊이 스며들어 있는 다원주의의 부정적 영향과 폐해로부터 사람들의 내면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도모할 때 좋은 근거와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근거에 바탕으로 다원주의 시대의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교정복지를 소개하려 한다. 교정복지가 어떤 학문 영역이며, 어떠한 이유로 다원주의 시대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 III. 다원주의 시대의 대안으로서의 교정복지

교정복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는 서구 다원주의의 등장 배경이나 한국이라는 맥락에서의 수용 과정과 수용 결과, 다원주의가 초래한 사회복지 영역의 관점 변화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의했다. 교정복지가 추구하는 바가 왜 오늘 우리 사회에 미친 다원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로서 제시될 수 있는지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다원주의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미친 다양한 부정적 영향 중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과 상실이다. 인간의 가치 또한 다른 여러 상대적 가치들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된 흐름이다. 이것은 정치나 경제, 문화, 학문영역에서도 물론 그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지만 가장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내면과 일상 삶의 영역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삶의 영역은 과거의 학문영역의 논의에서는 제외되는 사적인 영역이었다. 그러나 다원주의 시대처럼 개인적인 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흐름에서 삶의 영역은 오히려 가장 필요한 연구의 영역이 된다. 대부분의 기준이나 이념, 가치관 등의 객관적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삶이란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설명력을 갖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윈주의가 실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사람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교정복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상 삶에 스며든 다윈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할 대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앞장에서 언급하였지만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윈주의가 사회복지 영역에 끼친 영향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존엄성의 회복과 건강한 삶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의 몇 가지 중요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다윈주의의 가능성과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여 다윈주의가 끼친 부정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교정복지란 무엇인가?

교정복지는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 등 범죄 관련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의 한 영역이다.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범죄 관련 영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영역 내에서도 그리 친숙한 내용은 아니다. 범죄가 갖는 사회적 의미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복지의 개념이 많은 부분 일반화되고 확장되었으나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들은 주로 사회적인 약자로서 특별한 돌봄과 원조가 필요한 경우였다. 그러나 범죄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나 돌봄의 대상과는 거리가 먼, 공동체가 규정한 법과 질서를 어기고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이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부정적인 대상들이다.

그러나 범죄 후 이들은 낙인과 배제라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임으로 이들의 재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돌봄과 원조가 필요하다. 범죄는 1차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이겠지만 범죄가 발생하기까지의 가정이나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의 사회 구조적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이것은 한 대상의 존엄성의 회복과 복지의 구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것이 이들이 사회복지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할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교정복지에서 추구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회복이다. 범죄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범죄의 간접적인 관련자이건 범죄로 인해 상실하거나 손상되었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범죄인의 경우 출소 후 또 다시 재범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직 알선 등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회 재적응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지원이 범죄인들의 변화와 회복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다양한 현실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변화된 인식에 따른 삶의 변화라는 사실이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 확실하게 변화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이 영향력은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자기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에 초점을 둔 광의의 교정복지이다. 광의의 교정복지에서는 대상을 범죄인이나 비행 청소년 등의 범죄 관련 대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킨다. 광의의 교정복지는 협의의 교정복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련된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의 변화, 그에 따른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사회복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문제를 다룰 때에 환경 속 개인(Person in Environment)이라는

관점을 통해 개인이 상황이나 환경에서 받는 영향력을 바꾸거나 상황이나 환경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상황이나 환경이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정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지만 그보다 선행하는 것은 그런 외부의 영향력에 반응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양산되는 기승전결의 과정과 내면에서 작동되는 메커니즘의 탐구이다.

이러한 탐구는 단순히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클라이언트인가 상황/환경인가?’를 묻는 대신 ‘클라이언트가 처한 환경은 어떤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가?’ ‘클라이언트가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게 된 현재의 방식은 어떤 발전 과정(기승전결)을 통해 구축되었는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특성이 상황과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부정화를 촉진시켰는가?’를 탐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것은 환경적 특성이나 부정적 사건보다도 그에 대한 반응의 개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이었다. 즉 클라이언트의 삶과 내면에 존재하는 가치관이나 기준, 다양한 부정 혹은 긍정적 특성들이다. 현실의 드러난 부정적인 문제나 삶의 방식의 배후에는 자기 자신이나 상황, 환경, 문제 등을 지각하고 감각하는 방식이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생각하거나, 지성이나 정서, 의지 등의 일부분이 건강하고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감각이 둔화되어 있거나,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과 낮은 자아 존중감이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따라서 교정복지에서는 사람의 변화에 있어서 다른 요인보다도 클라이언트의 내적 자기 결정에 우선적으로 주목한다. 이것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에 대한 자기 결정이다. 교정복지에서는 삶의 실제 기반을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자기 결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내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의 문제는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에 그 어떤 영역보다도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확인하고 복지적 개입을 시도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그래서 교정복지에서는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자기 결정」을 키워드로 사람들의 삶을 깊이 관찰하고 탐구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만큼 다윈주의 가치관의 구체적인 영향이 드러나는 영역은 없다. 학문이나 정치, 경제 영역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접하고 전파하고 확대재생산하는 소화된 다윈주의 가치관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 파급력이 있다. 이것은 다윈주의가 지식이나 원리, 주의, 가치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a way of living)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배움의 과정이나 이해와 수용의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흡수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윈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때에도 바른 가치관이나 기준 체계를 어떻게 삶으로 소화하여 전달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릴 수밖에 없다.

교정복지에서 다루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가장 자신다운 고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지식이나 이론 정립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실제 구현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만들고 익히고 실천하는 과정에 대한 학문실천체계이다. 그러므로 교정복지는 삶에서 검증된 것에 초점을 맞춘다. 생각이나 언어, 당위적 결정, 지식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 2. 다윈주의 시대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교정복지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교정복지가 다윈주의 시대의 대안으로서 적합한지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

자. 다윈주의는 기존의 획일화된 기준과 틀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서로 다른 다양한 인간의 특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가치와 지위를 최대화한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드러난 결과는 그와 반대되는 측면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가장 존엄한 인간 자체가 수단과 도구로 이용된 범죄나 사건은 대중매체를 통해 하루에도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특정 사건사고가 아닐지라도 갑질, 갑을관계, 모멸감 등은 현대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언어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과거 물질만능주의의 영향 하에서는 인간이 물질을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예의범절이나 도덕, 체면, 양심을 버리는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비단 물질만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같은 감정만으로도 인간의 생명 자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팔고 사는 현실이 되었다. 타인의 생명도 큰 죄책감 없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취한다. ‘반드시 어때야 한다’는 양심의 기준이나 법의 기준들은 자신의 당시 상황이나 기분, 처지 등에 의해 충분히 무효화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가치관)하고 행동한다.

다윈주의 시대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열리게 된 반면 그 이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가 그 절대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조차 오늘날의 사회에서 상실되어 버렸다. 가장 존엄한 인간의 가치조차도 ‘선택될 수 있는 것’으로 다윈주의화된 것이다. 다윈주의는 인간을 위해 주장된 사상임에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다윈주의로 인해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가장 가치 없이 하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결과는 범죄사건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에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개인과 사회의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삶의 가치나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목소리를 내는 일이 드물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표현이 언급될 때는 있으나 일상에서는 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다.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은 물론 가정과 교육 영역, 심지어 종교 영역에서도 성공과 부요를 말할 뿐이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어떤 존재 가치로 대해야 하는지’ ‘삶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 인간의 가치와 삶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므로 배우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매일 같이 뉴스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 사고로 채워지는 현실 역시 이상할 것이 없는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다윈주의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삶의 가치나 인간 존엄성도 마치 부요나 성공에 밀릴 수 있는 하나의 선택 사항처럼 가르치는 다윈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큰 불안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삶이 무엇인지,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삶을 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이다. 그러나 다윈주의 시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무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무관심을 방조하고 무관심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괜찮다는 메시지를 준다. 「무엇을 하든지 의미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절대 존엄성이 확실하게 전제된 이후에야 적용 가능한 사실이다.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되는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제는 아니다.

과거만 해도 「사람으로서의 도리」 「인간의 삶의 목적」 등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했다. 이것은 서구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보편적 기준과 목적이 상실된 결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에 없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인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에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나 삶을 운영할 줄 모르는 것이다. 기준이나 목적, 과정은 없고 오직 결과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체성과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와 사람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극대화되어 기준이나 권위에 대항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으니 시도하라’ ‘이것은 옳지 않으니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나 당위성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교정복지에서는 자기중심, 자기 절대화의 다원주의 시대에 또 하나의 무조건적인 절대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신 「자기 존재 가치와 삶에 대한 가장 합당한 자기 결정을 하라」고 제안한다. 「선택할 수 있는 스펙트럼과 한계선을 제시하고 그 스펙트럼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확립하고,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체계를 자기 자신의 특성과 수준, 한계나 강점 등에 맞춰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즉,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삶의 체계 구축이다. 여기서의 선택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한계란 인간의 존엄성이란 절대 가치 기반과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고 기여하는 공동체성이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자기 결정을 하라는 제안은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관 중 하나인 「자기 결정권」에 기반하고 있으며, 외부의 결정에 무조건적 따르기보다 자신의 결정을 중시하는 다원주의 가치관에도 수용될 수 있는 제안이다.

혹자는 ‘어떻게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체성은 인간에게 부여된 절대적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정복지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철저히 오늘날의 현실에 맞춘 대안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천부의 인권을 누리고 보존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의 존엄성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본인이나 타인, 공동체가 인식하고 자각하고 확인하지 못한다면 자기 삶을 사실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무가치하게 살게 되기 때문이다. 교정복지에서는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삶에 초래한 다양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과 존엄성의 기준을 다시 정립할 필요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 다음 인간의 존엄성과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한계로 제시한 전체 스펙트럼 내에서 자신이 스스로의 이성과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기회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자기 정체성이나 존재 가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자기 결정은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을 구체화, 현실화 할 수 있는 교정복지적 실천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이다.

### 3. 교정복지의 구체적 실천방안: 교정복지는 어떻게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 1) 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기준 정립

일반적인 사회복지가 사회 구성원들의 웰빙(wellbeing)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법적, 제도적 정비와 보완, 문화적 혜택, 정서적 지원 제공 등에 주력한다면, 교정복지는 보다 철학적이고 근

본적인 차원에서의 인간다움의 회복과 웰빙을 논한다. 바로 개인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증진하는 시도이다. 이것은 자기 기준과 중심 체계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인간 회복이며,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으로의 회복이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적인 도모이면서 동시에 가장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삶은 그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졌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현되기 때문이다.

교정복지가 각 사람의 고유성의 회복을 주장하는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에 기반한 것으로서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상황이나 여건, 문제, 장애 등에 상관없이 존엄하다는 절대 가치이다. 이것은 가치가 다원화되고 절대 보편 가치가 버려지는 다원주의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핵심 가치이다.

그러나 교정복지에서 중시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사실(진리)의 전달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각 개인이 자신의 현실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하고 구현할 수 있는가의 실질적인 적용의 문제를 고민하고 탐구한다. 삶에서 실제 구현되지 않는 진리는 진리로서의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자신의 삶이나 타인과 상황에 대해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무엇이 사실인지 아는 것'과 '사실을 수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교정복지에서 도모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과 개념, 사실, 진리 등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켜 구체화하는 해석과 통역 작업이다. 개인들이 삶에서 아는 것을 어떻게 구현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에서 각자가 보편적 원리와 가치를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과 맥락과 자신의 고유성에 맞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교정복지는 이 해석과 통역작업에 가장 초점을 둔다. 삶은 우리가 '실제 살아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론 정리나 지식의 전달로 그칠 수가 없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과 현실에서 실천하는 삶 가운데 간극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의 간극마저도 스스로 인식하고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라 볼 수 있다. 아는 것을 실제 구현하려는 동기와 구현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참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sup>12)</sup>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객관적 지식을 삶에 연결시키는 교정복지 개입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 해당 개념에 대한 자기 이해의 과정이다. 자기 개념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오직 인간 존재 자체에 근거한다. 다른 어떤 조건도 인간 존재의 본연의 가치를 높이거나 감소시킬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조건과 같은 외부적 요소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주어지는가?」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요소들과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라. 예를 들어 좋은 성적, 외모, 자원, 성격 등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반대의 것들은 자신의

---

12) Grey, M. & Webb, S. A. (2009). *Social Work Theories and Methods*. London: Sage Publications. 김기덕·최명민·이현정·조성우 역(2012). 「철학적 토대와 대안적 연구방법: 사회복지학의 새로운 접근」. 서울: 시그마프레스.

가치를 낮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준들에는 장애나 한계, 결핍, 혹은 상대적인 비교의 결과로서의 열등감이나 우월감 등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존재에 덧붙여진 플러스알파와 같은 부가적 요소일 뿐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이 사실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는 것은 산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본인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배후에서 작동하는 내면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에 있어서의 잘못된 신념이나 확신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확인 후에는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모든 변화 과정의 시작은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 2) 자기 이해의 과정(사례연구: case study)

교정복지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의 삶이며, 실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다. 교정복지에서 자기 탐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 영역은 물론 의학 분야나 경제 경영 분야 등 각종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연구 방법이다. 사례연구는 특정한 한 사람의 대상자나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일반화가 아니라 깊은 이해를 위한 탐구(exploration)와 묘사(description) 자체이다. 각 학문 영역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 사례연구를 사용하지만, 사회복지 영역의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할 때 클라이언트나 그가 속한 주변 상황, 관계, 자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정(assessment)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개입의 전 과정의 기록으로서 사용된다.

반면 교정복지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의 사례연구와 많은 부분 유사하면서도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주체가 전문가나 사회복지사, 상담가가 아닌 클라이언트 자기 자신이라는 점이다. 본인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변화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카운슬러이자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되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부여한다. 이런 두 가지의 관점과 태도는 클라이언트가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점을 제공하며, 자신을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탐구하여 극복해갈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만들어주는 이점이 있다.

자신이 스스로의 연구자(카운슬러)이자 클라이언트가 되어 자신을 연구하는 사례연구(case study)는 오늘날의 다원주의 사회의 시의적절한 하나의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오늘날은 모든 권위나 지식, 객관적 방식등을 부정하고 대항하는 다원주의의 영향력이 팽배한 까닭에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사례연구는 스스로 자신의 연구자이자 연구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거부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사례연구는 주관적인 자기 평가나 자기 합리화의 도구는 아니다. 교정복지 사례연구의 초점은 자신의 오늘이 있기까지의 환경이나 상황, 사건, 타인의 영향력을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에서 일방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 타인의 영향력을 통해 이루어진 현실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자신의 결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기 현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다. 이것이 스스로 자신의 카운슬러이자 클라이언트가 되어 탐구하는 사례연구가 자기 결정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력한 자발적인 내적 동기를 불러 일으키는 가능성을 갖는 근거이다.

교정복지에서 도모하는 이러한 사례연구는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그 의미를 다 해석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거나, 타인이나 상황만을 원망하느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현실을 다시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도와준다. 사례연구를 통해 일상의 상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승전결을 정리하고 자기 내면과 외부의 맥락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개인 내면과 삶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sup>13)</sup>

사례연구를 통해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기 책임을 인식한 개인들은 자신의 잘못된 기준이나 잘못된 선택을 대체할 건강한 기준과 결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다. 이것은 타인이나 외부의 기준, 명령,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갖는 책임에서 비롯되는 자각이다. 이 자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정복지가 제안하는 다음 단계의 대안은 자기 고유의 삶의 체계의 구축이다. 문제를 깨닫는 것만으로 현실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다면 정확한 확인과 파악을 근거로 과거의 잘못된 기준이나 결정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과 결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 3) 자기 고유의 삶의 체계 구축

자기 존엄성의 토대 위에서 도모한 자기 연구의 과정은 우리의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삶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준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부분이나 절망하게 되는 상황 여건, 대인관계에서 취약한 점들, 감각이나 정서에 있어서의 무딘 부분 등을 파악하고 그 맥락과 배경 상황, 원인과 결과 등을 이해하게 되면 향후 삶에 대한 자기에게 맞는 대응책을 계획하여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노 조절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자신이 어떠한 맥락에서 화가 나는지를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 조절이 특히 취약한 상황이나 분위기, 타인의 표정이나 언어 등에 대해 파악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도중에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빈도를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러나 자기 고유의 삶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비단 이렇게 문제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서 그치지 않는다. 삶을 장애하는 요인들을 축소하고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기 고유의 기준과 방향과 체계를 잡고 살아가는 일관된 삶이다. 오늘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며, 어떻게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가르쳐주지 않는 다원주의 흐름 가운데 저마다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 가장 옳다」고 주장한다. 이런 혼돈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 세운 자기 기준과 체계이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싶은가?’ ‘나는 타인에게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가?’ ‘나는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가?’ ‘나는 나의 생애를 통해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13) 교정복지연구소 (2015). 「교정복지 사례연구집: 자신이 낳은 당신에게」. 2015년 출간 예정

바라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가진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며, 무엇을 추가적으로 습득해야 하는가?’..... 이것은 자신의 존재와 삶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초적인 토대를 놓는 작업이다.

자기 삶의 기준을 세우는 이 과정은 다원주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사회, 기준이나 도덕, 체계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관과 이념의 갈등 가운데 자신을 상실하지 않고 자기 본연의 정체성과 역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고유의 삶의 기준과 체계를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삶의 고유한 체계는 각각이 가진 문제나 특성이 다른 것처럼 개인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명백한 하나의 보편적 기반이 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공동체성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과 존재 가치를 존중하는 개인은 자신과 동등한 존재인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역사와 맥락과 환경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 이 두 가지가 자기 고유의 체계를 구축하는 제한선이 된다.

따라서 이런 바탕 위에서 자기 고유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결과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소통하고 공존하는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공동체 구축에도 기여하게 된다. 교정복지가 자기 기준과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라는 맥락 안에서의 체계 구축이다. 자기 기준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결코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욕구 충족의 정당화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정복지의 주장은 다원성의 긍정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편주의적 특성을 통합 시킴으로써 다원주의가 가진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테일러의 시도와 유사하다.

테일러가 주장한 “너 자신을 추구하라”로 표현되는 진정성(Autentizitat) 이념에는 누구나 각자 자신이 인간적일 수 있는 고유한 방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포함된다. 즉, 각자가 자신의 척도를 지니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재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 설정된 이러저러한 사회적 요구들이나 규범들 등에 더 이상 맹목적으로 끌려 다니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진정성의 이념은 외적인 권위가 아닌 인간의 내면성 속에서 도덕적 원천을 찾으려는 모더니즘의 주관주의의 출처에서 나왔으나, 테일러가 말하는 진정성은 사회적, 역사적 연관으로부터 폐쇄된 자기주장이 아니며, 타인으로부터 고립된 자기 폐쇄적 주관이 아니다. 이 선택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고 확장됨으로써만 비로소 그 도덕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sup>14)</sup>

교정복지에서 추구하는 자기 고유의 기준과 체계도 그 시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구축되는 자기 기준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의 변화가 그가 속한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14) Taylor, C. (2001). *(The) malaise of modernity*: 송영배 역 (2001). 「불안한 현대 사회 : 자기 중심적인 현대 문화의 근경과 이상」. 서울: 이학사.

#### IV. 결론 및 함의

본 논문에서는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 사상이 우리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끼친 다양한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다원주의의 부정적 영향에는 기존 사회의 보편 기준과 질서의 붕괴로 인한 아노미, 극단적 이기주의, 도덕과 법률 등에 대한 경시로 나타나는 비도덕성 등의 여러 가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가치관의 혼수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 가치 자체를 상실한 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절대 가치조차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흐름 속에서 선택 가능한 하나의 상대적 가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나 개인의 기준과 기초 토대가 부실한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이러한 인간 존엄성 상실의 문제는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존엄성을 상실한 결과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사회 등 사회 전 영역에서 현실의 단기적 결과만을 위해 수단과 목적을 도치하며 자신의 인간성은 물론 타인과 공동체의 인간성을 해하는 범죄나 속임, 비도덕, 비인간화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또한 존재 가치와 정체성의 상실의 결과로 삶의 기준과 방향을 잃어버린 개인의 불안하고 혼돈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교정복지에서는 이런 다원주의 시대의 대안으로서 개인의 존엄성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기 고유의 삶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한다. 이를 머릿속의 객관적 지식이 아닌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 지식으로서 구축할 수 있도록 삶의 언어로의 해석을 제공한다. 자신에 맞게 결정한 고유의 기준과 체계에 따라 일관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타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수정 보완하며 함께 공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안은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관점과 삶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의 가치와도 일치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다원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을 긍정으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제시한다.

가장 먼저 교정복지는 다원주의로 인해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채 비인간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근본 대안으로서 「우리 삶의 바른 가치관의 구축」을 제시한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가치관 구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치관의 구축에 대한 개개인들의 자발적인 동기가 생겨나지 않은 현실에서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사회 전체의 가치관 재건을 위한 노력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가치관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붕괴의 원인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관의 부재에 있음에 대한 사회 전반의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학교 교육이나 인문학 강좌 열풍만으로는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기독교 가치관의 필연성이 요구된다. 가치관은 자발적인 동기를 통한 믿음으로 중심으로 자신의 삶에서 구축될 때에야 실제 영향력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복지는 개입의 초점을 개인의 가치관 구축에 두어 개인의 가치관 회복으로부터 공동체로의 확장을 시도한다.

개인의 가치관 회복에 대한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 교정복지에서 제시한 방법은 자신이 스스로의 연구자(카운슬러)이자 클라이언트가 되어 자신을 연구하는 사례연구(case study)이다. 오늘날은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대항하는 다원주의의 부정적 영향력이 팽배한 까닭에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사례연구는 스스로 자신의 연구자이자 연구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거부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사례관리(case

management)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사례연구는 주관적인 자기 평가나 자기 합리화의 도구는 아니다. 교정복지 사례 연구의 초점은 자신의 오늘이 있기까지의 환경이나 상황, 사건, 타인의 영향력을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에서 일방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 타인의 영향력을 통해 이루어진 현실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자신의 결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기 현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다. 이것이 스스로 자신의 카운슬러이자 클라이언트가 되어 탐구하는 사례연구가 자기 결정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력한 자발적인 내적 동기를 불러 일으키는 가능성을 갖는 근거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기 책임을 인식한 개인들은 자신의 잘못된 기준이나 잘못된 선택을 대체할 건강한 기준과 결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다. 이것은 타인이나 외부의 기준, 명령,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갖는 책임에서 비롯되는 자각이다. 이 자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정복지가 제안하는 다음 단계의 대안은 자기 고유의 삶의 체계의 구축이다. 문제를 깨닫는 것만으로 현실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다면 정확한 확인과 파악을 근거로 과거의 잘못된 기준이나 결정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과 결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 자기 삶의 고유의 체계는 각각이 가진 문제나 특성이 다른 것처럼 개인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명백한 하나의 보편적 기반이 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공동체성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과 존재 가치를 존중하는 개인은 자신과 동등한 존재인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역사와 맥락과 환경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 이 두 가지가 자기 고유의 체계를 구축하는 제한선이 된다.

이러한 자기 연구를 통한 자기 가치관과 정체성의 회복과 자기 고유의 삶의 체계를 구축하는 교정복지적 대안은 오직 스스로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 그 효과성이 증명되는 변화이다. 이를 제시하는 연구자 본인의 입장에서조차 이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본인의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임상과 실천을 통해 증명된 변화의 사실로서 전달한다. 존재(가치관, 정체성)의 구축 없이는 자기 고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고유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야만 그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 결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개인의 구체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교정복지적 제안은 가장 미미하고 느린 방식의 변화와 개혁의 시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기반과 기초 토대를 상실한 채 결론과 해답만을 추구하려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상실한 모습을 감안할 때에는 오히려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대안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 바이다. 또한 이것은 이미 국가나 지역사회, 심지어 가정에서의 객관적인 기준이나 규범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실한 다원주의의 부정적인 결과를 감안하여 제시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다원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사회 전체의 변화가 한꺼번에 이를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정복지에서 기대하는 바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환한 개인이 만들어낼 사회적 영향력을 통한 전 공동체로의 변화의 확산이다. 자신이 자신의 삶과 주변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을 스스로 확인한 개인이 자신의 결정과 기준을 바꿀 때, 그 변화는 그가 속한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정의 변화는 그들이 속한 사회 내 공동체에서부터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전 사회공동체로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변화의 시작과 함께 가정에서의 가치관 교육이나 사회의 각 영역이나 교육 영역에서의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가치관과 철학의 교육이 병행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회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변화는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런 개인들이 사회 각 영역의 제도나 방안을 통해서 범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다원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기에 본 논문을 통해 그러한 범위를 다 다루며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인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사회와 연결 지어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자신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동기 부여와 과정을 제시했다. 이에 교정복지적 대안이 오늘날의 다원주의적 현실에 적용 가능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나는 연구자인 나 자신을 그러한 교정복지의 근거로 제시한다. 나는 생명의 근본 출처인 하나님이나 내가 속한 역사와 시대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분절된 존재로서의 살던 다원주의적 인간이었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될 수 없는 파편화된 죽은 지식들이 실제 구체적인 내 삶이나 타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교정복지를 도구로 내가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체성을 구축하고, 그에 합당한 나의 삶의 체계를 구축하면서부터이다.

그래서 나는 다원주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기본 방향과 원리로서 소개한 교정복지를 통해 개인이 혼란스러운 가치관의 난립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와 삶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대안을 삼으며,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삶을 체계와 기준을 마련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기독교학문영역이나 기독교회 영역에서 발견되는 신앙과 학문,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이원론의 한계나, 일반 영역에서 수단과 목적이 도치되는 모순의 문제도 삶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극복과 전환의 가능성을 붙잡을 수 있을 것도 기대한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과정의 축적을 통해 구체적인 각 영역의 실질적인 대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정리해 가려고 한다.



## 참고문헌

- 고미영 (2000). “구성주의와 정신보건 사회사업 실천의 접목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0. 5-23.
- 교정복지연구소 (2015). 「교정복지 사례연구집: 자신이 낫선 당신에게」. 2015년 출간 예정
- 김병서 (1995). “새로운 사회운동과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29. 477-499.
- 김영한 (1999).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사상」 43. 68-89.
- 김종숙 (1999). “포스트모더니즘 수용과 한국 사회윤리”, 「윤리연구」, 34. 23-45.
- 도정일 (1992).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길잡이/ 제2부-90년대 한국사회 주요 논쟁: 포스트모더니즘 논쟁”, 「월간 사회평론」, 92(1), 222-227.
- 박광준 (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 선택까지」. 서울: 양서원
- Bauman, Z. (1992). 「Intimations of Postmodernity」, London: Routledge.
- Gaston V. Rimlinger (1971).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1991).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 Grey, M. & Webb, S. A. (2009). *Social Work Theories and Methods*. London: Sage Publications. 김기덕·최명민·이현정·조성우 역(2012). 「철학적 토대와 대안적 연구방법: 사회복지학의 새로운 접근」. 서울: 시그마프레스.
- Sarup. M. (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Hemel Hempstead: Prentice Hall/ Harvester Wheatsheaf.
- Taylor, C. (2001). *(The) malaise of modernity*: 송영배 역 (2001). 「불안한 현대 사회 : 자기 중심적인 현대 문화의 곤경과 이상」. 서울: 이학사.